

## 인류Humankind

Week #19 “우리는 왜 환영합니까?” “Who do we welcome?”

3/27/2022

사도행전 8:26-40

26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27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29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30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31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32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33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34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35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36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37 (없음)

38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39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40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Acts 8:26 -40 (NIV) 26 Now an angel of the Lord said to Philip, "Go south to the road—the desert road—that goes down from Jerusalem to Gaza." 27 So he started out, and on his way he met an Ethiopian[a] eunuch, an important official in charge of all the treasury of the Kandake (which means "queen of the Ethiopians"). This man had gone to Jerusalem to worship, 28 and on his way home was sitting in his chariot reading the Book of Isaiah the prophet. 29 The Spirit told Philip, "Go to that chariot and stay near it." 30 Then Philip ran up to the chariot

and heard the man reading Isaiah the prophet.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Philip asked. 31 "How can I," he said, "unless someone explains it to me?" So he invited Philip to come up and sit with him. 32 This is the passage of Scripture the eunuch was reading: "He was led like a sheep to the slaughter, and as a lamb before its shearer is silent, so he did not open his mouth. 33 In his humiliation he was deprived of justice. Who can speak of his descendants? For his life was taken from the earth." [b] 34 The eunuch asked Philip, "Tell me, please, who is the prophet talking about, himself or someone else?" 35 Then Philip began with that very passage of Scripture and told him the good news about Jesus. 36 As they traveled along the road, they came to some water and the eunuch said, "Look, here is water. What can stand in the way of my being baptized?" [37] [c] 38 And he gave orders to stop the chariot. Then both Philip and the eunuch went down into the water and Philip baptized him. 39 When they came up out of the water, the Spirit of the Lord suddenly took Philip away, and the eunuch did not see him again, but went on his way rejoicing. 40 Philip, however, appeared at Azotus and traveled about, preaching the gospel in all the towns until he reached Caesarea.